

## [복싱]'무패복서' 메이웨더 vs UFC챔피언 맥그리거 8월 대격돌

등록 2017.06.15 11:00:32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무패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종합격투기 최고의 스타' 코너 맥그리거(28·아일랜드)가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ESPN, 폭스스포츠 등 해외 매체들은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오는 8월26일(한국시간) 맞붙는다고 15일 보도했다.

종합격투기 전문 매체인 MMA 파이팅도 대전 사실을 확인했다.

전설의 복서와 현 UFC 챔피언의 복싱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지난 1996년 애틀란타올림픽에서 복싱 페더급 동메달을 획득한 메이웨더는 프로로 전향해 5체급을 석권한 전설의 복서이다. 아웃복서지만, 극강의 복싱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다. 20년 동안 49전 49승을 기록했다.

맥그리거는 2015년 12월 UFC 페더급 챔피언과 지난해 11월 UFC 라이트급을 석권한 바 있다. 화끈한 경기 스타일의 타격가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다. 전적은 21승 3패를 기록했다.

[sdmun@newsis.com](mailto:sdm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